

그 근거가 아주 희박하고 「四四·四m가 되나 그것도 과장된 듯하다」는
說도 아무런 바탕이 없는 표현에 그치고 말았다.

신라·고려代 重靱을 겪으면서 地上의 木造架構가 變貌하고 그것이
周尺으로 裁斷結構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漢官尺·晋前
尺·唐尺 등이 混用되고 있었을 當代 使用尺을 遺物을 통하여 좀 더 검
토한 후에야 學論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皇龍寺木造塔의 營造用尺은 아
직 遺址에 근거한 東魏尺說에 머물러 있게 된다.

以上에서 皇龍寺塔 造營의 用尺과 그에 부수되는 문제점을 提示하고
새로 등장한 周尺說을 검토하기 위하여 周尺을 간략하게 살펴 보았다.

周尺說은 바탕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이어서 未備한 것으로 끝나고
말았지만 既往의 東魏尺說을 再檢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다는 문제만은
提起된 셈이다.

皇龍寺木造塔의 復原論을 다루기 위하여는 遺址의 정확한 실측과 解
析을 거쳐야 하고 보다 많은 用尺例를 수집하여야 비로서 立論이 가능
할 것이다.

周尺說의 허망한 霧散은 아직 立論될 바탕이 成熟되지 못하였음을 절
실하게 말하여 주는 것이다.

(一九六八年 十月 二十二日記)

註

- ① 高裕燮·朝鮮塔婆의 研究 第一章 木造塔婆條·一九四八年 乙酉 文化社刊
- ② 藤島亥治郎·朝鮮建築史論 第三章 皇龍寺條·建築雜誌五三二號
- ③ 米田美代治·朝鮮上代建築の研究 扶餘百濟五層石塔の意匠計劃·一九四四年刊
- ④ 坪井九馬三·支那古地理志の解釋に就いて·考古學雜誌一一の五號
- ⑤ 國立博物館藏 白銅製尺(三四九二號)
- ⑥ 燕岩 朴趾源·熱河日記 忘羊錄條
- ⑦ 韓治勛·一八世紀前半期에 있어서의 韓國社會經濟面에 對한 一考察·서울大學校論文集(人文社會)七輯

- ⑧ 徐居正·筆苑雜記 卷之二
- ⑨ 朴興秀·李朝尺度에 關한 研究·大東文化 第四輯

扶蘇山 出土 百濟 銅製燈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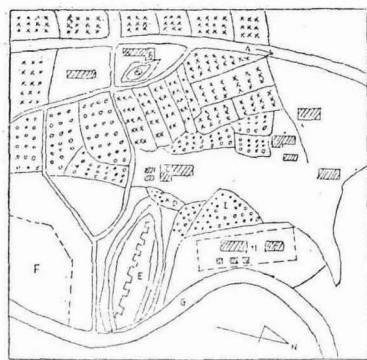
金 永 培

一九六八年 八月 二十七日 扶蘇山에서 銅製燈蓋가 發見되었는데 그概
要를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扶餘博物館에서 扶蘇山 登路를 따라約二百m쯤 올라가면 左便으로 扶
蘇山 西腹寺址가 있고 寺址의 北便 隣接한 곳에 上水道의 淨水場이 施
設되어 있는데 이곳이 過去부터 寺院址로 推察되던 밭이 있어서 이것을
「鄉校밭」이라고 불러 왔다. 여기서 조그마하고 예쁜 百濟時代 蓮華文瓦
當이 몇개 發見된 일이 있고(現在 扶博에 陳列) 몇年前에는 또 金銅製
小佛像이 發見되었으나 發見者가 甞장수에게 주었다는 傳言을 남기고 있
어서(洪思俊氏의 말) 發掘調査가 要請되었으나 上水道施設關係로 今年
여름에 全部 埋沒되어 버린것은 애석한 일이다. 그런데 鄉校밭 언덕밑
에 조그마한 밭이 또 하나 있는데 耕作者(扶餘邑 舊校里 三〇番地 金
寄福氏)가 밭을 다루다가 언덕 밑에서 偶然히 銅製燈蓋片을 發見하였다.
發見된 場所를 考察하여 보면 이 遺物이 當初부터 이곳에 埋置되었던 것
이 아니고 鄉校밭에 묻혀있던 것을 그곳 耕作者가 出土되니까 無心코 주
어서 언덕 밑에 버리었던 것이 흙에 묻혀있다가 이번에 다시 나타난 것으
로 볼 수 밖에 없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類例가 없을 뿐만 아니
라 製作手法이 아주 精巧하여 百濟時代 燈籠樣式을 考察하는데 좋은資
料가 될 만하다.

燈蓋의 構造를 살펴보면 銅製鑄物로서 六角을 이루고 있는데 各邊의 끝에는 木造建物の 雲宮模樣을 이루고 추너골이 返轉되어 輕快한 風致를 나타내었다. 全面은 透刻으로 되어 있는데 鑄造時에 거꾸집과의 사이가 잘못되어 透孔이 매꾸어진 部分이 若干있. 而 簷端에서 頂上까지를 三區로 分하여 下區는 一字로 透孔을 두고 中區에는 唐草文을 두르고 上區에는 花頭狀이 마련되어 있다. 相輪部는 完全히 缺失되어 原狀을 알 수 없으며 簷端內의 下區와 中區의 分區線에는 火舍를 連結시킬 때 利用된 것으로 보이는 구멍이 六角 每區마다 二個씩 鑄려 있다. 頂上 中央에는 相輪部를 連結하는데 利用된 接合孔이 鑄려 있고 轉角끝에도 구멍이 하나씩 鑄려 있어서 裝飾具를 垂下하였던 것 같다. 現存部分은 六角의 四角部分만이 殘存하는데 實測値는 一角의 幅이 一六cm 長이 一五cm 로서 東魏尺을 使用한 것으로 思料된다. (實測圖 參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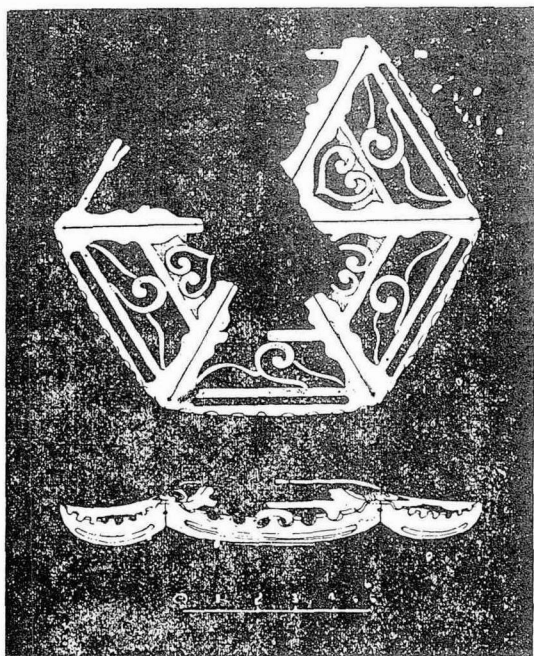
이 遺物이 發見된 鄉校밭은 扶蘇山西腹寺址 西便에 位置하고 있는데 이 西腹寺의 附屬建物を 여기에 建立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아담한 願堂같은 것이 아니었던가 한다. 그것은 이곳 發見의 上記한 蓮花文瓦當과 같은 것이 아니었던가 한다. 그 것은 이곳 發見의 上記한 蓮花文瓦當과 같은 것이 아니었던가 한다. 이 새로 發見된 燈蓋片은 全面 透刻



- | | |
|-----------|--------------|
| 凡 | 例 |
| H 上水道淨水場 | A 道路(→至子 두레) |
| I 鄉校田(寺址) | B 韓電出張所 |
| ××× 畚 | C 常春園 |
| ××× 畚 | D 遺物出土場所 |
| ○○○ 田 | E 扶蘇山羅城 |
| ▨ 家屋 | F " 西腹寺址 |
| | G " 登山路 |

銀製燈蓋 出土地 略圖

된 점에서 客內에서 使用되던 것으로 보이는 데 現存部分만으로서는 그 全形과 用途 등을 자세히 추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初有의 出土例로서 百濟 下代의 貴重한 作品임은 틀림없으며 우리나라의 燈燭器具로서 가장 高古한 資料를 삼을 수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나머지 部片의 收拾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이다.



扶餘出土 銅製燈蓋 實測圖